

류영수 발행인 논평

# 경찰에 선거사범이 있다하여 신고를 하였더니 신고한 사람을 뒷 조사하여 구속 시킨 사건



류영수 채널경남 발행인

OOO는 2016년도에 선거사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던 바 선거사범은 은폐하여 버리고 오히려 신고한 OOO이 OO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9개월간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를 지나면 중 산에 산불이 나서 경찰에 전화 하여 산불 신고를 하였던 바 산불 낸 사람은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신고한 사람을 먼저 털기 식으로 조사하여 구속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OOO으로부터 선거사범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 2주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 라 합니다)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신고자에게 "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수사를 덮어줄 것을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나보고 수사를 덮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자 당시 조사경찰관 강경위는 신고자에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경찰청장이 워선의 부탁이 있다면서 수사를 덮어줄 것을 당부한다"면

서 당시 신고자에게 "수사를 안하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신고자는 위 수사관에게 "수사관이 이 수사를 잘 하여 특진한다면서 신고자인 나에게 좋아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신고자는 신고 시 신고자와 당시 거제경찰서 김OO 서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위 김OO 경찰서장 과도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OO 경찰서장도 신고자에게 "수사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강경위의 말을 좀 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하여 신고자는 강경위에게 "수사 자료를 주면 특진한다면서 도와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했던바 강경위가 당시 거제경찰서 김OO 서장에게 "신고자에게 수사 협조를 해주라"라고 부탁했는지 당시 김OO 서장은 신고자에게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강경위 부탁을 들어 주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자는 강경위에게 "이 수사 바로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안하면 강경위도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강경위는 신고자에게 "그러면 수사를 잘할 것이니 수사 협조를 해 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나보고 부탁 할 것이 뭐 있소 수사를 하면 되지"하니 강경위가 신고자에게 당시 수사 기록을 내 밑에 수사기록 위에 서명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신고자가 "이것이 무엇이요?" 하니 강경위는 "기록 위예다가 신고자의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길래 신고자가

"왜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강경위는 "청장이 저에게 '똥'이라' 한 사건이니 신고자의 직업, 직책,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해주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청장도 더 이상 '똥'이라'는 지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써 주었더니 강경위는 다시 "안된다"면서 "신고자의 직업과 직책을 다시 적어달라"고 해서 신고자는 강경위의 요구대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신고자는 약3시간에 걸쳐 수사관 강경위의 요청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강경위의 요구대로 적고 서명 해주어서 돌아 간 것입니다.

그 후 10여일 후부터 수상한 차량이 신고자의 뒤를 따라 다니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자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신고자는 약 9개월에 걸쳐 경찰로부터 뒷조사와 미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 신고자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2017. 1. 20. 공갈 협박이란 죄명으로 거창 경찰서 대응감방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재판을 받고 2017. 8. 9. 오후에 재판을 받고 출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신고자는 구속되기 전에 신고자가 신고한 사건의 조사 경찰관 강경위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강경위는 신고자의 "지역 국회의원 부탁하는 것 같다"라고 하길래 당시 신고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강경위에게 "상세히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니 강경위는 "여기서 다 이야기 못 할 사정이 있다"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경위는 "신고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준다면 있었던 사연이 다 밝혀질 것이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채널경남에 제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2차에 이상 진정 고소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곳이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신고자가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언론에 호소를 하며 국민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신고자를 조사 하면 신고자는 "진상을 소상히 말 하겠다"고 하니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는 신고한 사람을 불러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보자 류영수  
경남 거창군수사면 웅양로 1124  
연락처 010-\*\*\*\*-\*\*\*\*

1. 저는 2차에 걸쳐 경찰청장님께 2017. 6. 15.당시경남지방경찰청장 O O O(전 부산경찰청장)의 직무유기죄

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진정서에서는 저는 "이 사건을 경남경찰청 또는 부산경찰청에 하명할 경우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반드시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까지 한 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당시 이OO 경찰청장은 "경남경찰청 일개 경사에게 치안정감인 OO지방경찰청을 조사하라"고 하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훈장전을 빌려 말하면 "남원 부사 변호대의 비리를 변호대 또는 그의 부하에게 조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위 하명을 받은 조사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덮어 버려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여 진정인은 다시 한 번 경남경찰청이나 부산경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경찰청장은 또다시 경남경찰청 소속

의 다른 경위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여 처벌하여야할 경찰청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당시 신고자의 선거사범 첩보내용을 "똥이라"고 지시한 OO경찰청장 OOO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는 2016. 6. 15.경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강OO 경위에게 제보한 "합양군청의 OOO군수, OOO의장, OOO현의장, OOO의원 등 4인의 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 대하여 위 강OO 경위가 수사하러하자 당시 경남경찰청장 OOO는 "워선의 부탁이다.이 사건을 덮어라"라고 지시하는 등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  
제보자 류영수



경남지방경찰청

##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경제부지사 공모 계획 발표 추진위원장에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선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7월4일 경제혁신 추진위원장 인선과 경제부지사 공모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급한 경제·민생 위기 해소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경제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선임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뿌리파문의 세력이 당초 예상보다는 약화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 등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내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태풍피해로 마음아파하실 도민 여러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혁신 추진위원장의 인선과 경제부지사 공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경제·민생 위기 해소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경상남도 경제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며 포용적 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

특히 최초의 25년 국가장기계획이었던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기획하고 설계하셨던 분으로서, 경남의 경제혁신과 장기비전 구상에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쾌히 경제혁신 추진위원장을 맡아 주신 방문규 전 차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하여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도 조례상 서부부지사 직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따라서 서부부지사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가능한 신속히 서부부지사를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경상남도의회와 협의 하였습니다.

경제혁신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경제부지사 임용절차를 시작으로 경제혁신 추진체계의 큰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일대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4일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경남지역회의 개최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서 평화의 시대 주역이 될 것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김경수도지사.

육으로 출발하는 물류전진기지로서 평화의 시대에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최광주 부의장은) 7월 13일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자문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경남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평화! 그 아름다운 동행>라는 슬로건 아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경남지역회의의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감토크와 정책

건의 심의·의결, 한반도 평화공감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의장 격려발문 대독, 최광주 경남부의장의 개회사, 김경수 도지사 축사, 김덕룡 수석부의장 격려사에 이어 한반도정책 추진방향의 정부측 보고, 평화공감 영상, 평화공감 토크, 정책건의안 및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공감토크'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남지역회의의 도전 ▲협의회 우수사례 공유 ▲내가 바라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민주

평화에 바란다'의 4개의 주제를 두고 자문위원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창원대 이기완 교수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 공감대 형성'과 인제대 진희관 교수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건의안이 채택되어 추후 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경남은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면서, "경남이 대륙으로 향하는 동북아물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경남이 평화의 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해 나가

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만 이루어진다. 제일 강한 안보는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라며,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내고 평화의 시대를 확고히 뒷받침하여, 강한 안보를 책임지는 헌법기구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법정회의로 '한반도 평화비전'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꿈이 반영된 '참여하는 정책건의'와 '누리는 평화',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18개 지역회의별로 지역특성을 살려 개최하고 있다.